

지리산 연암토굴 도현 스님

위빠사나는 '조용히 노는 방법'



도현 스님은 ...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출가 후 송광사, 쌍계사, 범어사, 태안사 등 전국의 선방을 돌면서 수행. 한때 쌍계사 금당선원의 선덕을 지냈다. 5년간 태국에서 위빠사나 수행공부를 했다. 지금은 16년째 지리산 연암토굴에서 홀로 수행정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용한 행복>이 있다.

마당에 내려앉은 햇살, 석란 한분, 휘파람새 울음 소리, 달빛이 어린 뜰,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소리, 돌수각에 떨어지는 물소리, 연못의 하얀 연꽃 두어 송이, 시냇물 위에 내려앉은 산새들, 눈 내리는 소리, 찻물 끓이는 소리,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간, 검은 밤하늘의 빛나는 별빛, 3평짜리 오두막집, 차 곱차곡 쌓아둔 땀나무. 이러한 것들은 도현 스님이 좋아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이다.

지리산자락에 터를 잡고 있는 연암토굴에 들어서면 '작은 것들이 내뿜는 아름다움'에 압도당한다. 작은 것들이 와락 가슴에 담겨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 3평짜리 작은 집에 작은 연못, 손바닥만한 수각, 그리고 검은 고무신 한 켤레가 놓인 작은 섬돌이 눈에 들어온다. 누워서 만세 부르기도 어려운 가로 다섯 자 세로 여섯 자짜리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작은 불단이 방 한 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은 범당이자 스님의 거처이다. 연암토굴에 머문 세월이 16년째이니 등잔불 하나에도 스님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난다.

도현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인 간화선과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모두 섭렵한 수행자다. 출가 후 수십 년간 '이뭇고'를 화두로 잡아 수행했다. 안거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산

아래를 모시고 산다는 스님은 '자연을 의인화한 것이 바로 향적어래'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수행자 시절에 이보다 더 좁은 동굴에서 더 열악한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인도여행을 하면서 확인했기에 오히려 넉넉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집을 작게 짓느냐를 고민했지요. 전 이렇게 조용하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에 상반되는 장애물이 생겨나요. 하지만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을 버려야만 내 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사스님은 병석에서 유언처럼 열 명의 상좌 중 만상좌인 도현 스님에게 주지직을 맡기고 싶어 했다. 도현 스님은 절대로 주지직을 맡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은사스님이 서운해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 큰 집에 살 인연이 생겨나도 조용하고 조용하게 사는 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세상의 뜻과는 거꾸로 사는 것이 수행자'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스쳐지나갔다.

스님은 '그 무엇도 하지 않고 그 무엇도 되지 않는 삶,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어렵듯이 느끼면서 아직 한 가지도 놓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무위의 삶에 대해

20년 넘게 위빠사나를 하고 있다. 간화선이 주종을 이루는 한국에서 위빠사나 수행자에 대한 환대는 없는지 여쭙었다.

"위빠사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위빠사나 수행자도 많아졌어요. 한국불교는 통불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수행법도 다 수용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성불하지는 궁극은 같아요. 수행방법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마음씀씀이를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 합니다."

사피는 알아차림 늘 깨어있는 마음인데, 사피만 있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위빠사나이다. 간화선이 화두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고, 위빠사나는 사피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한 편의 예술행위요, 피포먼스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연출에 해당한다. 사피는 연출하는 나를 지켜보는 감독관인 것이다. 즉 여기저기에서 자기 마음을 편드는 심판관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나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떠오르는 상념들은 되돌려 보낼 수도 붙잡아 둘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상념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좋다 싫다 즐겁다 값 매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지켜보는 것이 사피이고 위빠사나 수행

한국불교는 통불교 지향하는 위대함
수행방법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
마음 씹씀이를 어떻게 쓰는가 더 중요

철에도 좌복 위에서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음에 '부처님도 이 뭇고를 염(念)했었을까?'라는 의문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궁금했다. 초기불교의 원형이 남아있는 남방불교 국가중 하나인 태국으로 건너갔다. 그때가 1986년이었다.

넓은 숲속에 자리 잡은 사원에는 스님들의 거처인 작고 소박한 구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구미란 원두막 같은 집으로 작은 방 하나에 사위가 가능한 조그만 화장실이 딸려있으며 태국에서는 스님들에게 한 채씩 배정된다. 부처님 제시 시 숲속 수행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도현 스님은 태국에서 다섯 해 동안 위빠사나 수행공부를 했다. 그때 머물렀던 구미를 뺨으로 재어 와서 그대로 지은 것이 연암토굴이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증이 더해간다. 먼저 큰 집에 사는 것을 욕심내어 본 적은 없었는지 여쭙었다. 그러자 스님은 "이 집이 작게 느껴집니까?"하고 되물었다. 스님은 3평짜리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집을 동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없이 앉아서도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향적

"장미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한다. 장미는 피어있기 때문에 피어있는 것이다. 장미는 자기 자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장미는 누가 자기를 보느냐를 묻지 않는다"라고 어느 현자가 노래했듯이 도현 스님 또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스님의 출가동기가 궁금하여 여쭙었더니 "큰 뜻이 있어 출가한 것이 아니고 배고픔을 면하려고 출가했다"면서 웃었다. 부산 청학동에서 꽤 큰 부자로 살았었는데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답과 집이 모두 은행으로 넘어가버렸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왔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야 오죽했겠나 싶다. 한창 먹을 열여섯 나이에 사흘을 내리 굶어보기도 했다. 그때는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던 인연이 있기도 했지만, 절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말에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선 길이었다. 그때는 절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밥을 굶는 일은 없었다. 스님은 "출가할 때 하루 밥 세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으니 그 외의 것은 전부 뭉"이라고 한다.

도현 스님은 지금도 안거 때에는 큰 절 선방에서 대중들과 함께 좌복 위에 앉는다. 안거가 끝나면 다시 연암토굴로 돌아온다. 출가하여 수행자로서 살아 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25년은 간화선을 했고,

록 막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 볼 뿐이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대해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라고 값을 매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이 사피이고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위빠사나이다. 일상에서 호흡을 가지고 잘 익혀놓으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차리게 된다. 사피만 된다면 지금 차 마시는 것도 일상생활 그 자체가 위빠사나 수행이란다.

일반적으로 수행이란 엄격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힘을 얻으면 현재의 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답니다. 스님은 참선 혹은 위빠사나를 두고 '조용히 노는 방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행은 '스스로 만드는 행복'이라고 한다. 아무리 바빠도 쉼 시간이 있으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란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의 저서가 출간된 '아잔 차' 스님을 진경하였는지 여쭙었다.

그 당시 아잔 차 스님은 몸이 안좋아서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태국의 불자들은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님을 진경하기 위해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음당 문성 → 회음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총영사 이미지홍물탱화

해성불원(海戒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은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어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 양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향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 1. 명함판 사진 1매
-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

누룽지 냄새에 내 삶이 고맙다



도현 스님이 16년째 주석하고 있는 연암토굴. 누워서 만세부르기도 좁은 다섯 자, 여섯 자의 오두막이다. 도현 스님은 이곳에서 예불 올리고 수행하고 차를 마신다.

여 길게 줄을 서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큰스님이 병으로 누우면 '도인이 왜 저러는가' 하는 시선으로 보는데, 태국인들은 '정신이 또렷할 때 어떤 일로 세상에 기여했는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잔차 스님이 식물인간처럼 되었어도 여전히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고 한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인이라 하더라도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은 아프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잔 차 스님은 '깨달음을 빨리 달성하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보다는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좌선을 하기를 그리고 좌선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게 했었다.

도현 스님은 "인생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며 소수의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존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미 지나가버린 장애들을 생각하지 말 것이며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것 없이 현재에 머물러 살면 되지요.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 나 바로 이 순간이며 순간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 순간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다.

"불가에서는 부처와 보살은 원력(願力)으로 태어나고 중생은 업력(業力)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력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업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여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
간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떨 수 없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원력이 굳건하고 선행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금생에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처지에 대해 전생을 탓하지도 말고 다음 생에 하겠다면서 미루지도 말고 사람 몸 받았을 때 현생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어어나가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다.

도현 스님이 애착을 가지는 '선재회' 회원들과 인연을 맺어온 지도 20년이 넘는다. 가난한 양로원과 고아원을 돌면서 무료봉사를 하는 것에서 출발한 선재회는 지금은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암토굴이 있는 의신골에 '선재산야'를 마련한 선재회원들은 1년에 서너 차례 도현 스님의 지도 아래 위빠사나 수행에 들어간다. 도현 스님은 새벽예불 때 <지비경>을 독송하면서 이 세상이 좀더 따뜻해지기를, 사람들이 좀더 행복해지기를 발원한다.

스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여 여쭙었다. 대중살

이와 달리 독살이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동안 대중처소에서 익힌 습이 있어 새벽 4시엔 일어나 다기 물 올리고 참선에 들어간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엔 독서도 하고, 음악도 듣고, 날씨가 좋은 날은 다구를 쾅겨 계곡에서 혼자 차를 다려 마시기도 하고, 몸이 무거우면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걷기도 하고, 밤이면 누더기를 걸치고 하늘의 별들을 본다는 스님의 일상은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다.

바너 위에 올려놓은 누룽지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고소한 냄새를 맡다보면 자신의 삶이 고맙게만 느껴진다. 도현 스님은 "욕심이 없을수록 살아가는 게 중의 살림살이요,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게 중의 공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중의 맛"이라면서 환하게 웃는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속에는 '생은 덧없으니 부지런히 살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행복한 순간들을 잘 수용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여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크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과는 반대로 작고 소박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는 스님의 향기는 지리산을 채우고도 남는다.

글·사진=문운정(본지 객원기자) blueyun6@hanafos.com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일엽 선사(1896~1984)②

일엽 스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산문을 나서지 않고 입승을 자취했다. 스님의 원력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 30년 산문을 지키게 했던 스님의 힘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세상을 벗어났다 하여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이 없을 것이다.

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실은 세상에 대한 간절한 울조립일 수밖에 없다. 스님께서 언제 세상을 버린 적이 있든가. 오히려 세상을 향한 간절한 사랑에 세상을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 세상을 벗어난 스님의 행로가 결국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라 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버리는 법은 없다. 마친 가지로 세상을 미워하는 자 중에 세상을 버리지 않는 자 또한 드문

날의 망상이었을 뿐이다. 언제 그가 우주를 뒤덮는 개벽을 바랬던가. 삶의 곡절을 용납하는 초월을 바랬던가. 그가 마주친 것은 그저 생활의 밀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오늘 오전 나절에는 깜박 잊었던 '문화인'의 사명에 화들짝 놀라는 것" 뿐이었다.



일엽 스님이 식발하고 수행한 수덕사 환희대의 원통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자는 세상을 모른다. 스님은 그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여 세상을 알지 못하는 자를 '문화인'이 되지 못한 자라 칭한다. 스님을 '흘러간 여인'이라 칭한 못난 이에겐 스님은 '할(嗚)'을 외친다.

30년 산문을 나서지 않고 입승을 섰던 이가 세상을 향해 변명을 쏟아놓는다. 변명일까. 천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을 쏟아놓는 것이다. 굳이 그에게는 세상을 향해 변명을 쏟아야만 할 절

“사랑을 못잇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려고 출가했다”

것이 진실이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벗어난 자유여성, 아니 자유의 인간. 그것이 일엽 스님이다. 그래서 스님은 세상을 향해 말한다.

세상을 벗어났으니 세상을 버린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세상을 벗어나 세상으로 들어간 남, 그를 우리는 일엽이라 칭한다. 그에게는 한낱 이론적인 해명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 줄 수 없었다. 현실의, 지금 딛고 선 절박한 한 끼의 먹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으로 되새겨졌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났던, 지금 세상을 벗어나 살고 있는 자가 힘 모아 "아무튼 지금 끝장을 보라. 이 범박에는 도리가 없다. 내가 우주 전체요, 이 현실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철저한 인식을 가져질 정신력이면 시종 없는 생활의 밀전이 장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에게 세상을 벗어난 삶이 또 어디에 있었을까. 우주 전체에, 목숨을 건 끝장을 보는 마당에, 그가 말하는 것은 '생활의 밀전'이다. 그에게 거창한 우주나 창조주나, 조화옹은 한

박함이 있었다. 제발 당신이 딛고 선 땅바닥에 발을 굴러 보란 것이다. 그 땅바닥을 떠나 당신이 어디에서 서 있을 수 있는지, 일엽 스님은 말한다.

"나는 무량겁적(無量劫的)이고 진·후생적 대가로 더불어 일체 중생의 생적 대가까지 다 지 못할 만한 그런 큰 벌이를 하기 위한 공부가 중의 공부, 곧 참선인 것을 알았다. 때문에 지금 나는 참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흘러흘러 흐름에 해매는 일체 존재가 모두 내게 매달라 견져질 것이다. 또한 '사랑에 지쳐서 중이 되었다'니,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인생을 버렸다는 말이다. 나는 사랑의 근본을 알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중이 되었다."

맛다, 그렇다. 실은 스님은 사랑을 못 잇어서 '중'이 됐다. 아무도 사랑을 말하지 않기에 진짜 사랑을 하려고 '중'이 된 것이다.

세상은 벗어났다고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세상은 벗어남으로써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벗어날수록 한 낱 한 낱의 일상은 더욱 사랑스러운 까닭이다.

석길암(금강대 HK연구센터 교수)

남산스님 자비사
080-714-3030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맹귀부목**을 사용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산스님의 맹귀부목은 당신의 대운을 바꾸어줍니다.

남산스님이 전하는 영험보시

남산스님께서 파스 한 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약자들에게 어느 곳이든 인연이 닿는 곳이라면 달려가 치료해주는 것을 일대사 인연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께서선 언젠가부터 어렵고 힘든 불자들에게 앞날의 길흉화복을 알려주어 재앙은 미연에 방지하고, 대운이 도래했을 때는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영험보시를 하고 계신다.

- 부동산매매를 꼭 원하는 분
- 자영업이 잘되지 않는 분
- 취업과 승진을 원하는 분
- 결혼을 못하신 분
-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
- 건강이 나빠진 분

무보시 감명하실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생시:
-----	-----	-------	-----

맹귀부목을 받으신 분에게는 남산스님께서 직접 무보시로 감명해 드립니다.

- 심원 오형상 상생이 되지 않는 이름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 자신의 일과 조화가 이루어진 이름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